

기출문제를 풀기 전 알아야 할 것

『PSAT 기출문제는 회독수를 늘릴 생각을 해선 안된다.』

→ 한번 풀 때, 최대한의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생각하자

→ 자주 풀게 되면, 문제가 머릿속에 남게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알아갈 수 없게 된다.

『한번에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 스스로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어떠한 것을 중점에 둘것인지,

→ 어떤식으로 풀지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가 된 상태여야 한다.

『만약 관통력을 이용한다면』

→ 자료를 볼 때, 통일된 습관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

→ 보기를 볼 때, 관점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 만약, 관(점)과 통(일된 습관)이 적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다른년도의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추가적으로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 더하기, 빼기 연습, 그리고 곱셈값 암기와 소인수 분해를 연습하자.

계산속도 UP을 위한 숫자 암기

다음의 빈칸을 채우고, 암기해보자.

×2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20	20	40	30	60	40	80	50	10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2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120	70	140	80	160	90	18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3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30	20	60	30	90	40	120	50	15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3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180	70	210	80	240	90	27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다음의 빈칸을 채우고, 암기해보자.

×4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40	20	80	30	120	40	160	50	20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4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240	70	280	80	320	90	36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5	1□	답	2□	답	3□	답	4□	답	5□	답
□0	10	50	20	100	30	150	40	200	50	250
□1	11		21		31		41		51	
□2	12		22		32		42		52	
□3	13		23		33		43		53	
□4	14		24		34		44		54	
□5	15		25		35		45		55	
□6	16		26		36		46		56	
□7	17		27		37		47		57	
□8	18		28		38		48		58	
□9	19		29		39		49		59	

×5	6□	답	7□	답	8□	답	9□	답
□0	60	300	70	350	80	400	90	450
□1	61		71		81		91	
□2	62		72		82		92	
□3	63		73		83		93	
□4	64		74		84		94	
□5	65		75		85		95	
□6	66		76		86		96	
□7	67		77		87		97	
□8	68		78		88		98	
□9	69		79		89		99	

구구단	2	3	4	5	6	7	8	9
2	4	6	8	10	12	14	16	18
3	6	9	12	15	18	21	24	27
4	8	12	16	20	24	28	32	36
5	10	15	20	25	30	35	40	45
6	12	18	24	30	36	42	48	54
7	14	21	28	35	42	49	56	63
8	16	24	32	40	48	56	64	72
9	18	27	36	45	54	63	72	81

11~19의 제곱수	
11×11	121
12×12	144
13×13	169
14×14	196
15×15	225
16×16	256
17×17	289
18×18	324
19×19	361

분수	소수	%값	배율
$\frac{1}{2}$	0.500	50.0%	2배
$\frac{1}{3}$	0.333	33.3%	3배
$\frac{1}{4}$	0.250	25.0%	4배
$\frac{1}{5}$	0.200	20.0%	5배
$\frac{1}{6}$	0.166	16.6%	6배
$\frac{1}{7}$	0.143	14.3%	7배
$\frac{1}{8}$	0.125	12.5%	8배
$\frac{1}{9}$	0.111	11.1%	9배
$\frac{1}{10}$	0.100	10.0%	10배
$\frac{1}{11}$	0.091	9.1%	11배
$\frac{1}{12}$	0.083	8.3%	12배
$\frac{1}{13}$	0.077	7.7%	13배
$\frac{1}{14}$	0.071	7.1%	14배
$\frac{1}{15}$	0.067	6.7%	15배
$\frac{1}{16}$	0.063	6.3%	16배
$\frac{1}{17}$	0.059	5.9%	17배
$\frac{1}{18}$	0.056	5.6%	18배
$\frac{1}{19}$	0.053	5.3%	19배
$\frac{1}{20}$	0.050	5%	20배

문 1. 다음 <표>와 <정보>는 2014년 1월 전국 4개 도시에 각각 위치한 '갑' 회사의 공장(A ~ D)별 실제 가동시간과 가능 가동시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근거하여 공장 A와 D가 위치한 도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공장별 실제 가동시간 및 가능 가동시간
(단위: 시간)

구분 \ 공장	A	B	C	D
실제 가동시간	300	150	250	300
가능 가동시간	400	200	300	500

※ 실가동률(%) = $\frac{\text{실제 가동시간}}{\text{가능 가동시간}} \times 100$

<정 보>

- 광주와 인천 공장의 가능 가동시간 합은 서울과 부산 공장의 가능 가동시간 합보다 크다.
- 부산과 광주 공장의 실제 가동시간 합은 서울과 인천 공장의 실제 가동시간 합보다 작다.
- 서울과 부산 공장의 실가동률은 같다.
- 인천 공장의 가능 가동시간이 가장 길다.

A가 위치한 도시 D가 위치한 도시

- | | | |
|---|----|----|
| ① | 서울 | 부산 |
| ② | 서울 | 인천 |
| ③ | 부산 | 인천 |
| ④ | 부산 | 광주 |
| ⑤ | 광주 | 인천 |

<문제 유형>

매칭형

- ① 선지 소거를 잘 이용하자.

<통일된 습관>

<관점의 적용>

조건 ①

가능 가동시간의 경우

광주 + 인천 > 서울 + 부산

조건 ②

실제 가동시간의 경우

부산 + 광주 < 서울 + 인천

조건 ③

서울과 부산의 실 가동률은 같다.

A와 B가 서울과 부산이다.

→ ①, ⑤ 번 소거

조건 ④

인천의 가능가동시간이 가장 길다

인천 = D 이다.

→ ④번 소거

→ 조건 ②를 이용하자

D + 서울 > C + 부산

→ 만약에 부산이 A라면, 둘다 700이된다.

즉 서울이 = A이다.

→ ③번 소거

답 : ②

문 2. 다음 <표>는 4개 안전(A ~ D)에 대한 심사위원(갑, 을, 병)의 선호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 안전들 중 서로 다른 두 안전을 임의로 선정하고 위 3명의 심사위원이 한 표씩 투표하여 다수결원칙에 따라 하나의 안전을 채택한다고 할 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4개 안전에 대한 심사위원의 선호

선호순위 \ 심사위원	갑	을	병
1 순위	C	A	B
2 순위	B	B	C
3 순위	D	C	A
4 순위	A	D	D

※ 각 심사위원은 선정된 두 안전 중 자신의 선호순위가 더 높은 안전에 반드시 투표함.

<보 기>

- ㄱ. A 안전과 C 안전이 선정되면 C 안전이 채택된다.
- ㄴ. B 안전은 어떠한 다른 안전과 함께 선정되어도 항상 채택된다.
- ㄷ. C 안전이 선정되어 채택되는 경우는 모두 3가지이다.
- ㄹ. D 안전은 어떠한 다른 안전과 함께 선정되어도 항상 채택되지 못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ㄹ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더 높은 선호를 선택한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갑과 병의 C안전이 A안전보다 위에 있다.

즉, C안전이 채택된다. → 옳다.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ㄹ (단순 확인)

D 안전의 경우, 을과 병에서 모두 꼴등이므로 채택될 수 없다.

→ 옳다.

4일의 경우 10,000보 이상 걸었으나 섭취칼로리가 2,350이다.

옳지 않다.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ㄷ (단순 확인)

8일의 경우 버스를 이용했으나, 체중이 증가하였다. 옳지않다.

②번 선지 소거

답 : ④

문 3. 다음 <표>는 A지역 유치원 유형별 교지면적과 교사면적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A지역 유치원 유형별 교지면적과 교사면적
(단위 : m²)

구분 \ 유치원 유형		유치원 유형		
		국립	공립	사립
교지면적	유치원당	255.0	170.8	1,478.4
	원아 1인당	3.4	6.1	13.2
교사면적	유치원당	562.5	81.2	806.4
	원아 1인당	7.5	2.9	7.2

- ① 원아 1인당 교지면적은 사립이 공립의 2배 이상이다.
- ② 유치원당 교사면적이 가장 큰 유형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사립, 국립, 공립 순이다.
- ③ 유치원당 교지면적이 유치원당 교사면적보다 작은 유치원 유형은 국립뿐이다.
- ④ 유치원당 교지면적은 사립이 국립의 5.5배 이상이고 유치원당 교사면적은 사립이 국립의 1.4배 이상이다.
- ⑤ 유치원당 교지면적과 원아 1인당 교사면적은 국립이 사립보다 모두 작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교지면적 / 교사면적
국립/공립/사립
헛갈리지말자

<관점의 적용>

보기 ① (단순 확인)

‘교지’면적 원아 1인당 사립(13.2) 공립(6.1)
2배이상이다. → 옳다.

보기 ② (단순 확인)

‘교사’면적 유치원당
사립(806.4) 국립(562.5), 공립(81.2) → 옳다

보기 ③ (단순 확인)

유치원당 ‘교지’면적 < ‘교사’면적
모두 교지가 더 작다. 옳다.

보기 ④ (계산이 아닌 가공)

유치원당 ‘교지’면적 = 사립(1478.4), 국립(255.0)

$$\frac{1478.4}{255} = \frac{1100 + 378.4}{200 + 55} > 5.5$$

유치원당 ‘교사’면적 = 사립(806.4) 국립(562.5)

$$\frac{806}{562.5} = \frac{700 + 106}{500 + 62.5} > 1.4 \rightarrow \text{옳다.}$$

답 :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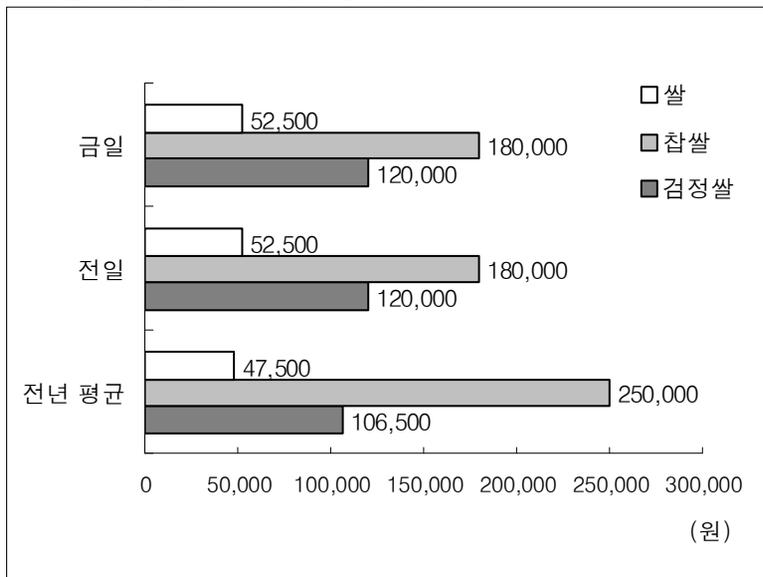
문 4. 다음 <표>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품목별 조사단위당 가격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래프로 옳지 않은 것은?

<표> 품목별 조사단위당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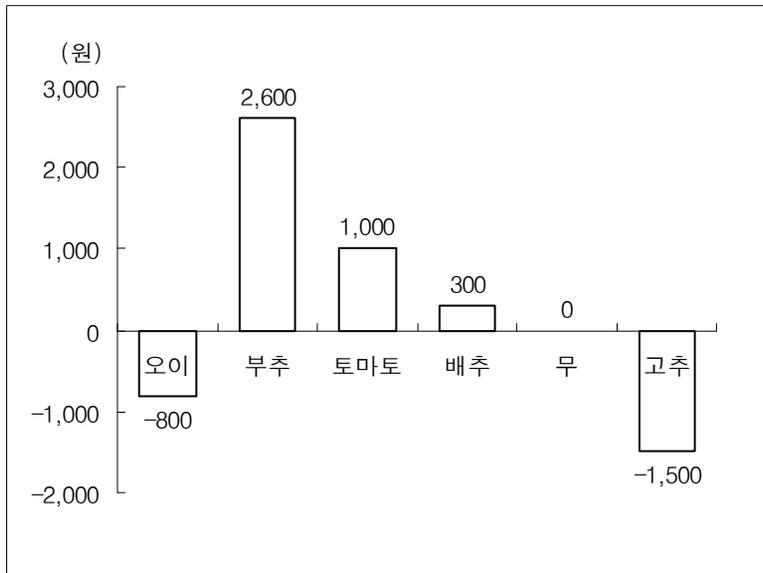
(단위 : kg, 원)

구분	품목	조사 단위	조사단위당 가격		
			금일	전일	전년 평균
곡물	쌀	20	52,500	52,500	47,500
	잡쌀	60	180,000	180,000	250,000
	검정쌀	30	120,000	120,000	106,500
	콩	60	624,000	624,000	660,000
	참깨	30	129,000	129,000	127,500
채소	오이	10	23,600	24,400	20,800
	부추	10	68,100	65,500	41,900
	토마토	10	34,100	33,100	20,800
	배추	10	9,500	9,200	6,200
	무	15	8,500	8,500	6,500
	고추	10	43,300	44,800	3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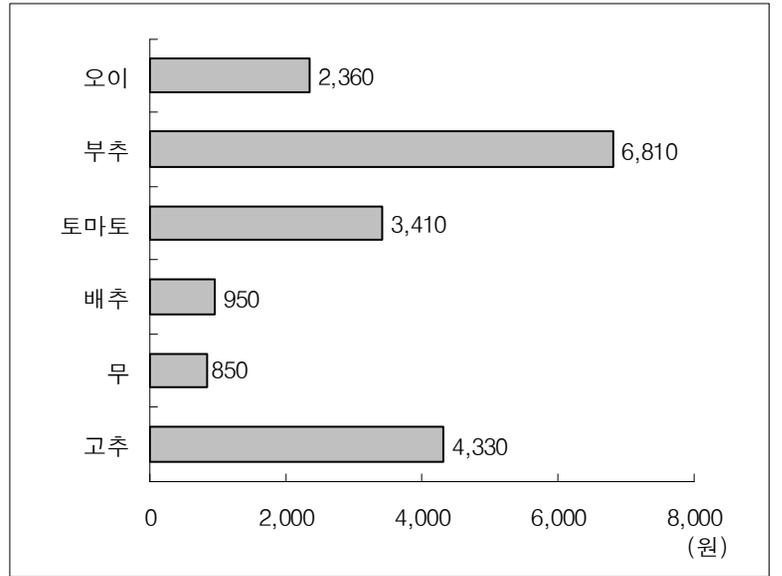
① 쌀, 잡쌀, 검정쌀의 조사단위당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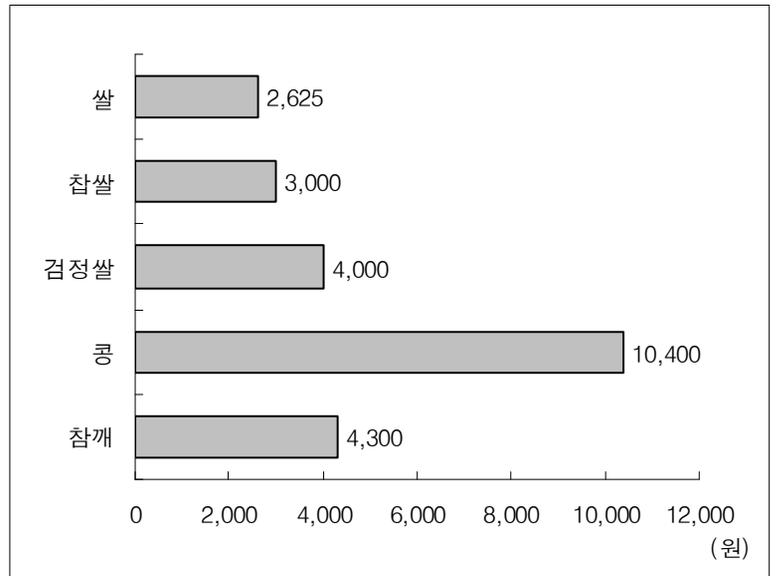
② 채소의 조사단위당 전일가격 대비 금일가격 등락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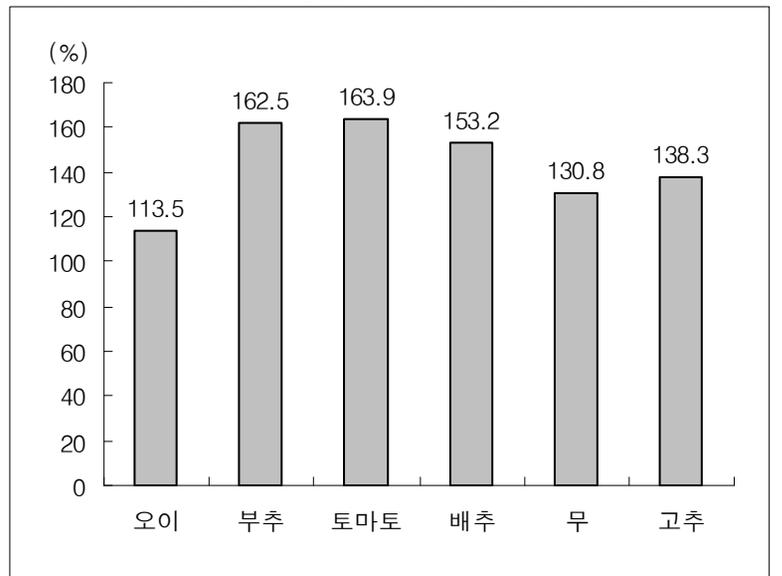
③ 채소 1kg당 금일가격



④ 곡물 1kg당 금일가격



⑤ 채소의 조사단위당 전년 평균가격 대비 금일가격 비율



<문제 유형>

표 → 차트변환형

- ① 통일된 습관을 통하여 자료를 파악하자
- ② 계산의 2단계를 준수하자

<통일된 습관>

$$1\text{kg당 가격} = \text{조사단위당 가격} / \text{조사단위}$$

<관점의 적용>

보기 ③ (단순확인)

무의 경우 8500/15여야하는데 8500/10의 값이 적혀있다.

답 : ③

문 5. 다음 <표>는 어느 해 전국 농경지(논과 밭)의 가뭄 피해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 지역별 논 가뭄 피해 현황

(단위 : ha)

지역	재배면적	피해면적	피해 발생기간
충북	65,812	1,794	7.26. ~ 7.31.
충남	171,409	106	7.15. ~ 7.31.
전북	163,914	52,399	7.15. ~ 8.9.
전남	221,202	59,953	7.11. ~ 8.9.
경북	157,213	5,071	7.13. ~ 7.31.
경남	130,007	25,235	7.12. ~ 8.9.
대구	1,901	106	7.25. ~ 7.26.
광주	10,016	3,226	7.18. ~ 7.31.
기타	223,621	0	-
전체	1,145,095	147,890	7.11. ~ 8.9.

<표 2> 지역별 밭 가뭄 피해 현황

(단위 : ha)

지역	재배면적	피해면적	피해 발생기간
전북	65,065	6,212	7.19. ~ 7.31.
전남	162,924	33,787	7.19. ~ 7.31.
경북	152,137	16,702	7.19. ~ 7.31.
경남	72,686	6,756	7.12. ~ 7.31.
제주	65,294	8,723	7.20. ~ 7.31.
대구	4,198	42	7.25. ~ 7.26.
광주	5,315	5	7.24. ~ 7.31.
기타	347,316	0	-
전체	874,935	72,227	7.12. ~ 7.31.

<보 기>

- ㄱ. 논 가뭄 피해면적이 가장 큰 지역은 밭 가뭄 피해면적도 가장 크다.
- ㄴ. 논 가뭄 피해 발생기간이 가장 긴 지역과 밭 가뭄 피해 발생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같다.
- ㄷ. 전체 논 재배면적 대비 전체 논 가뭄 피해면적 비율은 15% 이하이다.
- ㄹ. 밭 재배면적 대비 밭 가뭄 피해면적 비율은 경북이 경남보다 크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표 1>과 <표 2>모두 전체가 적혀있다.
피해 발생기간이 있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논 가뭄 피해면적이 가장 큰 지역 = 전남

밭 가뭄 피해면적이 가장 큰 지역 = 전남

→ 옳다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ㄹ

보기 ㄹ (단순 확인)

<표2>에서 $\frac{\text{피해면적}}{\text{재배면적}}$

경북 ($\frac{167}{152}$), 경남($\frac{675}{726}$) → 당연히 경북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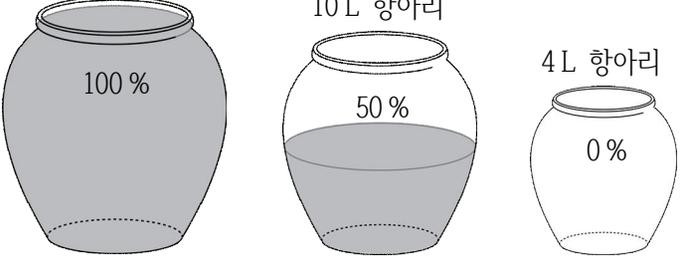
옳다.

①, ②번 선지 소거

답 : ④

문 6. 다음 <그림>과 같이 3개의 항아리가 있다. 이를 이용하여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수행순서>의 모든 단계를 완료한 후, '10 L 항아리'에 남아 있는 물의 양을 구하면?

<그림>



15 L 항아리 100 %
10 L 항아리 50 %
4 L 항아리 0 %

- '15 L 항아리'에는 물이 100 % 차 있다.
- '10 L 항아리'에는 물이 50 % 차 있다.
- '4 L 항아리'는 비어 있다.

<조 건>

- 한 항아리에서 다른 항아리로 물을 부을 때, 주는 항아리가 완전히 비거나 받는 항아리가 가득 찰 때까지 물을 붓는다.
- <수행순서> 각 단계에서 물의 손실은 없다.

<수행순서>

1단계: '15 L 항아리'의 물을 '4 L 항아리'에 붓는다.
 2단계: '15 L 항아리'의 물을 '10 L 항아리'에 붓는다.
 3단계: '4 L 항아리'의 물을 '15 L 항아리'에 붓는다.
 4단계: '10 L 항아리'의 물을 '4 L 항아리'에 붓는다.
 5단계: '4 L 항아리'의 물을 '15 L 항아리'에 붓는다.
 6단계: '10 L 항아리'의 물을 '15 L 항아리'에 붓는다.

- ① 4 L
- ② 5 L
- ③ 6 L
- ④ 7 L
- ⑤ 8 L

<문제 유형>

표 → 차트변환형

- ① 통일된 습관을 통하여 자료를 파악하자
- ② 계산의 2단계를 준수하자

<통일된 습관>

물의 전체 값 = 15L이다.

<관점의 적용>

	15L 항아리	10L 항아리	4L 항아리
0단계	15	5	0
1단계	11	5	4
2단계	6	10	4
3단계	10	10	0
4단계	10	6	4
5단계	14	6	0
6단계	15	5	0

답 : ②

문 7. 다음 <표>는 2013년 '갑'국의 수도권 집중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보고서>의 내용 중 <표>의 자료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표> 수도권 집중 현황

구분		전국(A)	수도권(B)	$(\frac{B}{A} \times 100) (\%)$
인구 및 주택	인구(천 명)	50,034	24,472	48.9
	주택 수(천 호)	17,672	8,173	46.2
산업	지역 총 생산액(십억 원)	856,192	408,592	47.7
	제조업체 수(개)	119,181	67,799	56.9
	서비스업체 수(개)	765,817	370,015	48.3
금융	금융예금액(십억 원)	592,721	407,361	68.7
	금융대출액(십억 원)	699,430	469,374	67.1
기능	4년제 대학 수(개)	175	68	38.9
	공공기관 수(개)	409	345	84.4
	의료기관 수(개)	54,728	26,999	49.3

<보고서>

-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 비중은 48.9%이다. ㉠ 수도권 인구밀도는 전국 인구밀도의 2배 이상이고, ㉡ 수도권 1인당 주택면적은 전국 1인당 주택면적보다 작다.
- 산업측면에서 ㉢ 수도권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액이 전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 이상이다.
- 수도권 금융예금액은 전국 금융예금액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 수도권 1인당 금융대출액은 전국 1인당 금융대출액보다 많다.
- 전국 대비 수도권의 의료기관 수 비중은 49.3%이고 공공기관 수 비중은 84.4%이다. ㉤ 4년제 대학 재학생 수는 수도권에 비수도권보다 적다.

- ① ㄱ ② ㄴ
- ③ ㄷ ④ ㄹ
- ⑤ ㅁ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도출가능여부에 대해 물어본다.
숫자말고 구분에 집중하자

<관점의 적용>

보기 ①

인구밀도 → 면적은 없는 정보이다. → 알 수 없다.

보기 ②

주택면적 → 주택면적은 없는 정보이다. → 알 수 없다.

보기 ③

생산액 → 생산액은 없는 정보이다. → 알 수 없다.

보기 ④

1인당 금융대출액 → 둘다 주어진 정보다 → 알 수 있다.

답 : ④

문 8. 다음 <표>는 2006 ~ 2010년 '갑'국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연도별 연구개발비

구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연구개발비(십억원)	27,346	31,301	34,498	37,929	43,855
전년대비 증가율(%)	13.2	14.5	10.2	9.9	15.6
공공부담 비중(%)	24.3	26.1	26.8	28.7	28.0
인구 만명당 연구개발비(백만원)	5,662	6,460	7,097	7,781	8,452

* 연구개발비 = 공공부담 연구개발비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 ① 연구개발비의 공공부담 비중은 매년 증가하였다.
- ② 전년에 비해 인구 만명당 연구개발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해는 2010년이다.
- ③ 2009년에 비해 2010년 '갑'국 인구는 증가하였다.
- ④ 전년대비 연구개발비 증가액이 가장 작은 해는 2009년이다.
- ⑤ 연구개발비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작은 해와 연구개발비의 민간부담 비중이 가장 큰 해는 같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증가율 = <폭과 율>

$$\text{인구} = \frac{\text{연구개발비}}{\text{인구만명당 연구개발비}}$$

<관점의 적용>

보기 ① (단순 확인)

공공부담비중의 경우

2009(28.7) → 2010(28.0) 감소하였다. → 옳지 않다.

보기 ② (폭폭폭)

2010년의 인구만명당 연구개발비의 증가폭

$$= 8452 - 7781 = 671$$

2009년의 인구만명당 연구개발비 증가폭

$$= 7781 - 7097 = 684$$

→ 09년이 더 크다 → 옳지 않다.

보기 ③ (계산이 아닌 가공)

$$2009년의 \text{인구} = \frac{37929}{7781}$$

$$2010년의 \text{인구} = \frac{43855}{8452}$$

2010년이 더 많다. → 옳다.

$$(\text{안보이는가? } \frac{35000 + 2929}{7000 + 781} < 5, \frac{40000 + 3855}{8000 + 452} > 5)$$

답 : ③

문 9. 다음 <표>는 2001 ~ 2012년 '갑'국 식품산업 매출액 및 생산액 추이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갑'국 식품산업 매출액 및 생산액 추이
(단위 : 십억원, %)

구분 연도	식품산업 매출액	식품산업 생산액	제조업 생산액 대비 식품산업 생산액 비중	GDP 대비 식품산업 생산액 비중
2001	30,781	27,685	17.98	4.25
2002	36,388	35,388	21.17	4.91
2003	23,909	21,046	11.96	2.74
2004	33,181	30,045	14.60	3.63
2005	33,335	29,579	13.84	3.42
2006	35,699	32,695	14.80	3.60
2007	37,366	33,148	13.89	3.40
2008	39,299	36,650	14.30	3.57
2009	44,441	40,408	15.16	3.79
2010	38,791	34,548	10.82	2.94
2011	44,448	40,318	11.58	3.26
2012	47,328	43,478	12.22	3.42

<보 기>

- ㄱ. 2012년 제조업 생산액은 2001년 제조업 생산액의 4배 이상이다.
- ㄴ. 2005년 이후 식품산업 매출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해는 2009년이다.
- ㄷ. GDP 대비 제조업 생산액 비중은 2012년이 2007년보다 크다.
- ㄹ. 2008년 '갑'국 GDP는 1,000조원 이상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ㄹ
- ⑤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text{제조업 생산액} = \frac{\text{식품산업}}{\text{제조업 대비 식품산업}}$$

$$\text{GDP} = \frac{\text{식품산업}}{\text{GDP 대비 식품산업}}$$

<관점의 적용>

보기 ㄱ (계산의 2단계)

$$2012\text{년 제조업 생산액} = \frac{43478}{12.22}$$

$$2011\text{년 제조업 생산액} = \frac{27685}{17.98}$$

→ 4배일 리가 없다. → 옳지 않다.

①, ②, ③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ㄴ (올올올 -1)

$$2009\text{년의 증가폭 } 44441 - 39229 = 5212$$

$$2011\text{년의 증가폭 } 44448 - 38791 = 5657$$

→ 2011년이 증가폭은 더 큰데, 분모는 더 작다.

2009년이 가장크지 않다. → 옳지 않다.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답 : ⑤

문 10. 다음 <표>는 2013년 11월 7개 도시의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및 전세수급 동향 지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및 전세수급 동향 지수

도시 \ 지수	면적별 전세가격 지수			전세수급 동향 지수
	소형	중형	대형	
서울	115.9	112.5	113.5	114.6
부산	103.9	105.6	102.2	115.4
대구	123.0	126.7	118.2	124.0
인천	117.1	119.8	117.4	127.4
광주	104.0	104.2	101.5	101.3
대전	111.5	107.8	108.1	112.3
울산	104.3	102.7	104.1	101.0

- ※ 1) 2013년 11월 전세가격 지수 = $\frac{2013년\ 11월\ 평균\ 전세가격}{2012년\ 11월\ 평균\ 전세가격} \times 100$
 2) 전세수급 동향 지수는 각 지역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도시의 아파트 전세 공급 상황에 대해 부족·적당·충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게 한 후,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에서 '충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빼고 100을 더한 값임.
 예: '부족' 응답비율 30%, '충분' 응답비율 50%인 경우 전세수급 동향 지수는 $(30 - 50) + 100 = 80$
 3) 아파트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만 구분됨.

<보 기>

- ㄱ. 2012년 11월에 비해 2013년 11월 7개 도시 모두에서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상승하였다.
 ㄴ. 중형 아파트의 2012년 11월 대비 2013년 11월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가장 큰 도시는 대구이다.
 ㄷ. 각 도시에서 아파트 전세공급 상황에 대해 '부족'이라고 응답한 공인중개사는 '충분'이라고 응답한 공인중개사보다 많다.
 ㄹ. 광주의 공인중개사 중 60% 이상이 광주의 아파트 전세공급 상황에 대해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지수의 분모동일 방향 X

전세수급 동향지수의 경우 부족은 +, 적당은 변화없음 충분은 -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모두 100보다 크다 → 옳다.

③, ④, ⑤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ㄴ (단순 확인)

지수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 옳지 않다.

①번 선지 소거

답 : ②

문 11. 다음 <표>와 <정보>는 어느 상담센터에서 2013년에 실시한 상담가 유형별 가족상담건수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근거할 때, 2013년 하반기 전문상담가에 의한 가족상담건수는?

<표> 2013년 상담가 유형별 가족상담건수

(단위: 건)

상담가 유형	가족상담건수
일반상담가	120
전문상담가	60

* 가족상담은 일반상담가에 의한 가족상담과 전문상담가에 의한 가족상담으로만 구분됨.

<정 보>

- 2013년 가족상담의 30%는 상반기에, 70%는 하반기에 실시되었다.
- 2013년 일반상담가에 의한 가족상담의 40%는 상반기에, 60%는 하반기에 실시되었다.

- ① 38
- ② 40
- ③ 48
- ④ 54
- ⑤ 56

<문제 유형>

<통일된 습관>

<관점의 적용>

2013년의 가족 상담 = 180건
 상반기 = 30% = 54건,
 하반기 = 70% = 126건

2013년의 일반상담 = 120건
 상반기 = 40% = 48건
 하반기 = 60% = 72건

$126 - 72 = 54$ 건
 (*상반기 값을 계산해야할까?)

답 : ④

문 12. 다음 <표>는 '갑'국의 2008 ~ 2013년 연도별 산업 신기술검증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산업 신기술검증 연간건수 및 연간비용
(단위: 건, 천만원)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서류 검증	건수	755	691	()	767	725	812	
	비용	54	()	57	41	102	68	
현장 검증	건수	576	650	630	691	()	760	
	비용	824	1,074	1,091	()	2,546	1,609	
전체	건수	1,331	1,341	1,395	1,458	1,577	1,572	
	비용	878	1,134	1,148	1,745	2,648	()	

* 신기술검증은 서류검증과 현장검증으로만 구분됨.

- ① 산업 신기술검증 전체비용은 매년 증가하였다.
- ② 서류검증 건수는 매년 현장검증 건수보다 많다.
- ③ 서류검증 건당 비용은 2008년에 가장 크다.
- ④ 전년에 비해 현장검증 비용이 감소한 연도는 2개이다.
- ⑤ 전년에 비해 현장검증 건수가 감소한 해에는 전년에 비해 서류검증 건수가 증가하였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전체가 주어짐, 빈칸이 주어짐
전체 = 서류 + 현장

<관점의 적용>

보기 ① (계산이 아닌 가공)
전체비용은 매년증가하였나?
2012년 → 2013년
서류검증, 현장검증 둘다 감소하였다. → 옳지 않다.

보기 ② (계산이 아닌 가공)
서류검증이 현장검증보다 많다
= 서류는 전체의 50%이상이다. → 현장은 전체의 50%이하다.
2012년의 경우 서류검증이 50% 미만이다.

$$\frac{725}{1577} = \frac{700+25}{1400+177} < 50\% \rightarrow \text{옳지 않다.}$$

보기 ③ (계산이 아닌 가공)

$$\text{건당비용} = \frac{\text{비용}}{\text{건수}}$$

2008년 ($\frac{54}{755}$), 2012년 ($\frac{102}{725}$) → 2012년이 더 크다.
→ 옳지 않다.

보기 ④

2011년 현장검증비용 = 1745-41 = 1701
감소한 것은 2012→2013뿐이다.

답 : ⑤

문 13. 다음 <표>는 지난 1개월간 패밀리레스토랑 방문경험이 있는 20 ~ 35세 여성 113명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방문횟수와 직업을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1> 응답자의 연령대별 방문횟수 조사결과

(단위 : 명)

연령대 방문횟수	20 ~ 25세	26 ~ 30세	31 ~ 35세	합
1회	19	12	3	34
2 ~ 3회	27	32	4	63
4 ~ 5회	6	5	2	13
6회 이상	1	2	0	3
계	53	51	9	113

<표 2> 응답자의 직업 조사결과

(단위 : 명)

직업	응답자
학생	49
회사원	43
공무원	2
전문직	7
자영업	9
가정주부	3
계	113

* 복수응답과 무응답은 없음.

- ① 전체 응답자 중 20 ~ 25세 응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0% 이상이다.
- ② 26 ~ 30세 응답자 중 4회 이상 방문한 응답자 비율은 15% 미만이다.
- ③ 31 ~ 35세 응답자의 1인당 평균 방문횟수는 2회 미만이다.
- ④ 전체 응답자 중 직업이 학생 또는 공무원인 응답자 비율은 50% 이상이다.
- ⑤ 전체 응답자 중 20 ~ 25세인 전문직 응답자 비율은 5% 미만이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표1>과 <표2>모두 합계가 있다.

<표1>과 <표2>의 합계가 동일하다.

<관점의 적용>

보기 ① (계산이 아닌 가공)

$$\frac{53}{113} = \frac{50+3}{100+13} < 50\% \rightarrow \text{옳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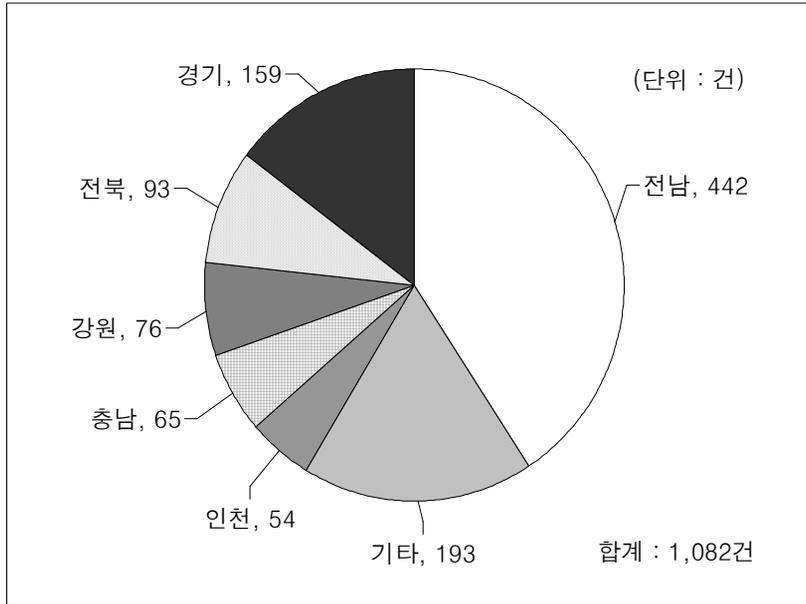
보기 ② (계산이 아닌 가공)

$$\frac{5+2}{113} < 15\% \rightarrow \text{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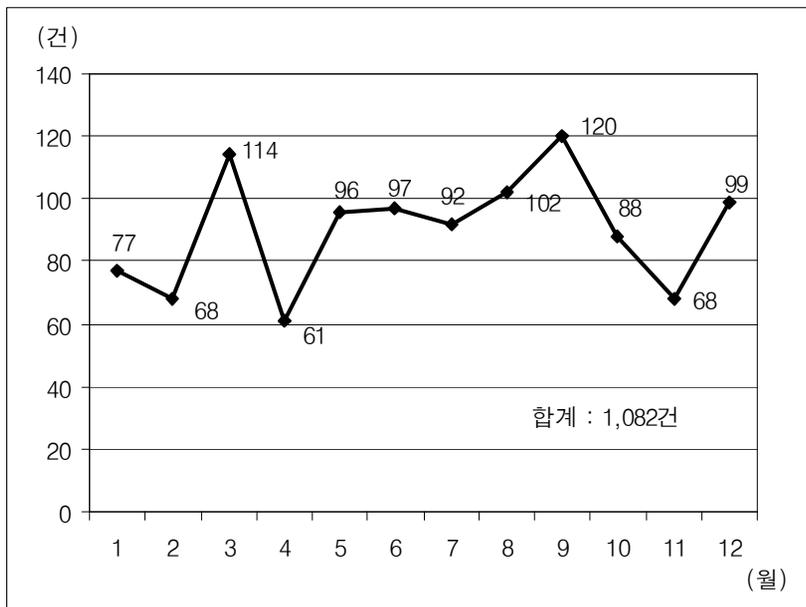
답 : ②

문 14. 다음 <그림>은 2013년 전국 지역별, 월별 영상회의 개최실적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림 1> 전국 지역별 영상회의 개최건수



<그림 2> 전국 월별 영상회의 개최건수



- ① 전국 월별 영상회의 개최건수의 전월대비 증가율은 5월이 가장 높다.
- ② 전국 월별 영상회의 개최건수를 분기별로 비교하면 3/4분기에 가장 많다.
- ③ 영상회의 개최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이다.
- ④ 인천과 충남이 모든 영상회의를 9월에 개최했다면 9월에 영상회의를 개최한 지역은 모두 3개이다.
- ⑤ 강원, 전북, 전남의 영상회의 개최건수의 합은 전국 영상회의 개최건수의 50% 이상이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그림1>과 <그림2>의 합계가 동일하다.

<관점의 적용>

보기 ① (단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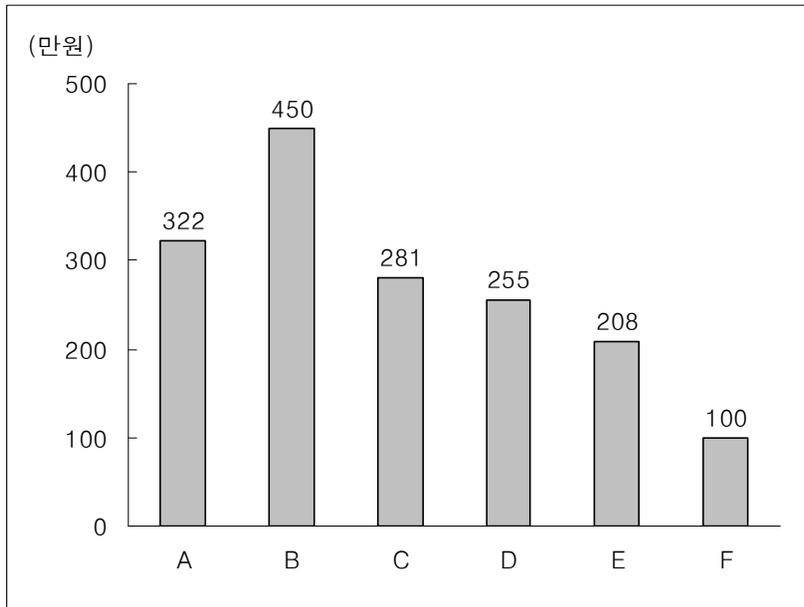
가시적으로 3월의 증가율이 5월보다 크다.

→ 잘안보인다면? $\frac{114}{68} > \frac{96}{61}$ → 옳지 않다.

답 : ①

문 15. 다음 <그림>과 <표>는 전산장비(A ~ F) 연간유지비와 전산장비 가격 대비 연간유지비 비율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 전산장비 연간유지비



<표> 전산장비 가격 대비 연간유지비 비율

(단위 : %)

전산장비	A	B	C	D	E	F
비율	8.0	7.5	7.0	5.0	4.0	3.0

- ① B의 연간유지비가 D의 연간유지비의 2배 이상이다.
- ② 가격이 가장 높은 전산장비는 A이다.
- ③ 가격이 가장 낮은 전산장비는 F이다.
- ④ C의 가격은 E의 가격보다 높다.
- ⑤ A를 제외한 전산장비는 가격이 높을수록 연간유지비도 더 높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text{전산장비 가격} = \frac{\text{그림}}{\text{표}}$$

<관점의 적용>

보기 ① (계산이 아닌 가공)

$$\frac{450}{255} < 2 \rightarrow \text{옳지 않다.}$$

보기 ② (계산의 2단계)

$$\text{A의 전산장비 가격} = \frac{322}{8}$$

$$\text{B의 전산장비 가격} = \frac{450}{7.5}$$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다. B가 당연히 크다. → 옳지 않다.

보기 ③ (계산의 2단계)

$$\text{F의 전산장비 가격} = \frac{100}{3} \rightarrow \text{가장 낮다.} \rightarrow \text{옳다.}$$

답 : ③

문 16. 다음 <보고서>는 자동차 오염물질 및 배출가스 관리여건에 관한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되지 않은 자료는?

<보고서>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에 비해 자동차 수가 많아 자동차 배기오염물질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1,732만대를 넘어섰다. 운송수단별 수송분담률에서도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5 % 이상이다. 한편 2008년 자동차 1대당 인구는 2.9명으로 미국에 비해 2배 이상이다.

국내 자동차 등록현황을 사용 연료별로 살펴보면 휘발유 차량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유, LPG 차량 순이다.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대비 경유 가격이 상승하였다. 그 여파로 국내에서 경유 차량의 신규 등록이 휘발유 차량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는 OECD 선진국에서 경유 차량이 일반화되는 현상과 대비된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빠른 증가는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자동차 배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산화탄소(CO) 67.5 %, 질소산화물(NO_x) 41.7 %, 미세먼지(PM₁₀) 23.5 %이다. 특히 질소산화물은 태양광선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발생시키고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

① 연도별 국내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 천대)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등록대수	14,586	14,934	15,397	15,895	16,428	16,794	17,325

② 2007년 국내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 천톤/년)

구분	배출량	자동차 배기가스 (비중)
일산화탄소(CO)	809	546(67.5 %)
질소산화물(NO _x)	1,188	495(41.7 %)
이산화황(SO ₂)	403	1(0.2 %)
미세먼지(PM ₁₀)	98	23(23.5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875	95(10.9 %)
암모니아(NH ₃)	309	10(3.2 %)
계	3,682	1,170(31.8 %)

③ 2008년 국내 운송수단별 수송분담률

(단위 : 백만명, %)

구분	자동차	지하철	철도	항공	해운	합
수송인구	9,798	2,142	1,020	16	14	12,990
수송분담률	75.4	16.5	7.9	0.1	0.1	100.0

④ 2008년 OECD 국가의 자동차 연료별 상대가격

(휘발유 기준)

구분	휘발유	경유	LPG
OECD 회원국 전체	100	86	45
OECD 선진국	100	85	42
OECD 비선진국	100	87	54
OECD 산유국	100	86	50
OECD 비산유국	100	85	31

⑤ 2008년 국가별 자동차 1대당 인구

(단위 : 명)

국 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자동차 1대당 인구	2.9	1.7	1.2	1.9	1.7

<문제 유형>

필요 형

- ① 이미 주어진 정보부터 소거하자

<통일된 습관>

- ① 2002~2008 등록현황
- ② 2007년 주요 대기오염 배출량
- ③ 2008년 국내 운송수단별 수송분담률
- ④ 2008년 OECD 연료가격
- ⑤ 2008년 자동차 1대당 인구

<관점의 적용>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1,732만대를 넘어섰다. → ①

운송수단별 수송분담률에서도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5 % 이상이다. →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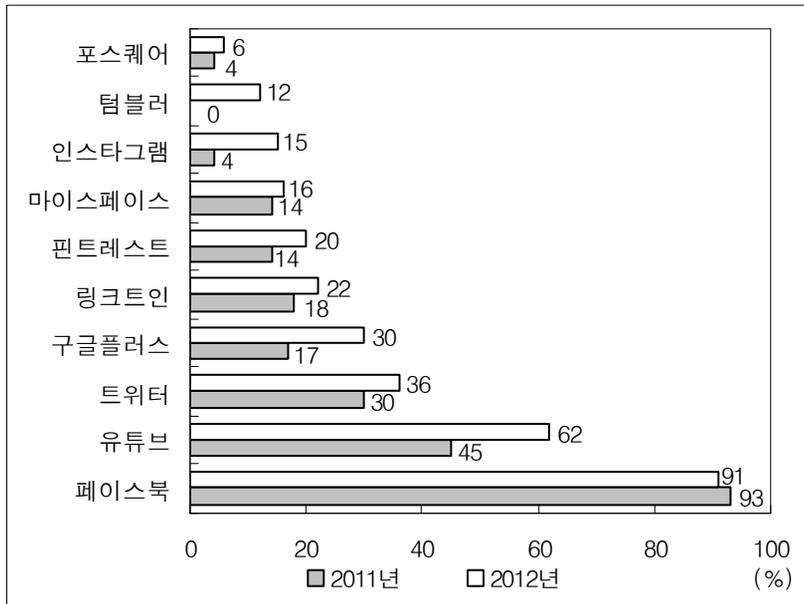
한편 2008년 자동차 1대당 인구는 2.9명으로 미국에 비해 2배 이상이다. → ⑤

2007년 기준으로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자동차 배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산화탄소(CO) 67.5 %, 질소산화물(NO_x) 41.7 %, 미세먼지(PM₁₀) 23.5 %이다. → ②

답 : ④

문 17. 다음 <그림>은 2011년과 2012년 A대학 학생들의 10개 소셜 미디어 이용률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소셜미디어 이용률



※ 1) 제시된 소셜미디어 외 다른 소셜미디어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2) 각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중 해당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보 기>

- ㄱ. 2011년과 2012년 모두 이용률이 가장 높은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이다.
- ㄴ. 2012년 소셜미디어 이용률 상위 5개 순위는 2011년과 다르다.
- ㄷ. 2011년에 비해 2012년 이용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소셜미디어는 구글플러스이다.
- ㄹ. 2011년에 비해 2012년 이용률이 감소한 소셜미디어는 1개이다.
- ㅁ. 2011년 이용률이 50% 이상인 소셜미디어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이다.

-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2011년이 아랫 막대고, 2012년이 윗 막대다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윗막대와 아랫막대 모두 가장 긴 것은 페이스북이다.

→ 옳다.

④, ⑤번 선지 소거

보기 ㄴ (단순 확인)

링크트인과 구글플러스의 순위가 변화했다. → 옳다.

③번 선지 소거 → 보기 ㄹ, 보기 ㅁ중 선택

보기 ㅁ (단순 확인)

유튜브의 경우 45%로 50%를 넘지 못했다. → 옳지 않다.

②번 선지 소거

답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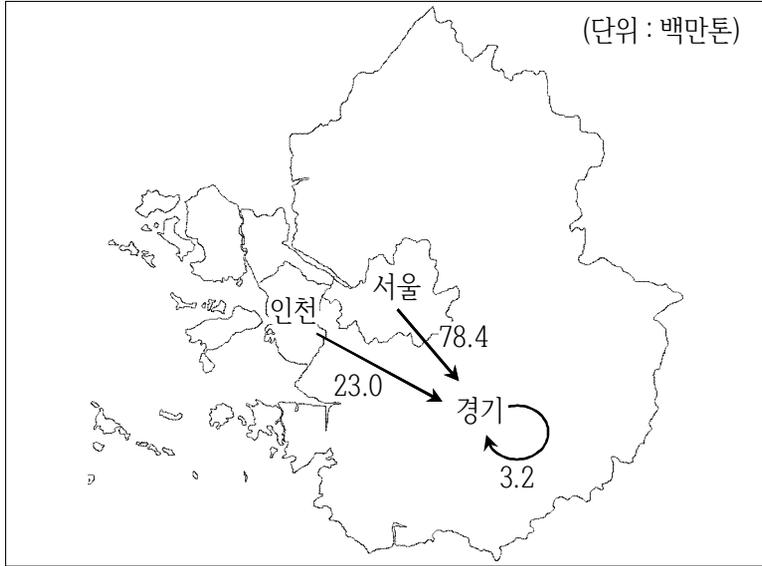
문 18. 다음 <표>는 2013년 수도권 3개 지역의 지역 간 화물 유동량에 대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그림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13년 수도권 3개 지역 간 화물 유동량
(단위 : 백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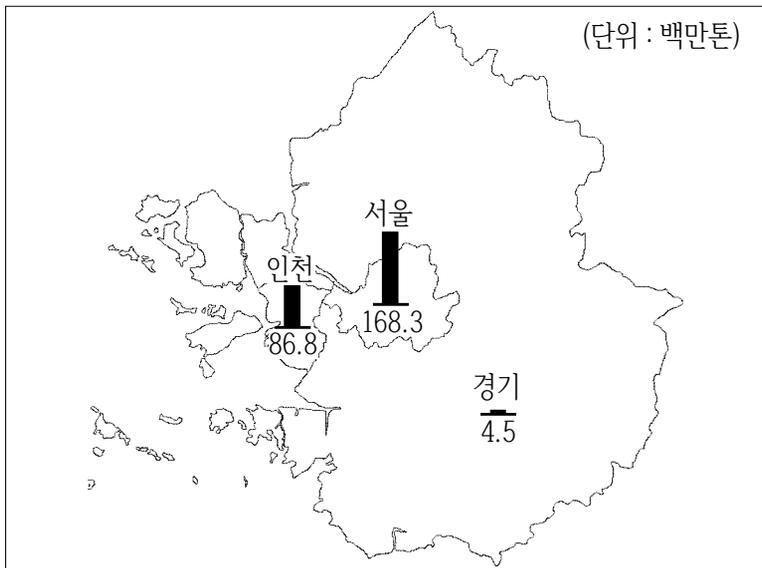
출발 지역 \ 도착 지역	서울	인천	경기	합
서울	59.6	8.5	0.6	68.7
인천	30.3	55.3	0.7	86.3
경기	78.4	23.0	3.2	104.6
계	168.3	86.8	4.5	-

* 수도권 외부와의 화물 이동은 고려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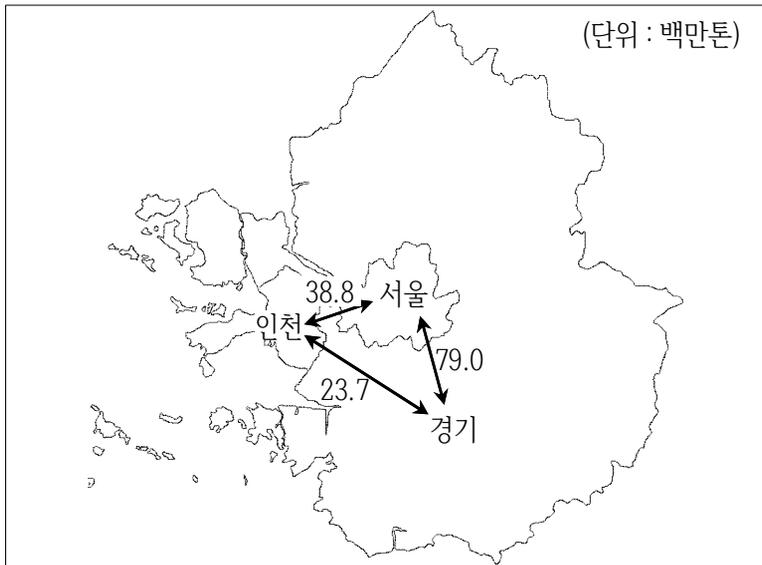
① 수도권 출발 지역별 경기 도착 화물 유동량



② 수도권 3개 지역별 도착 화물 유동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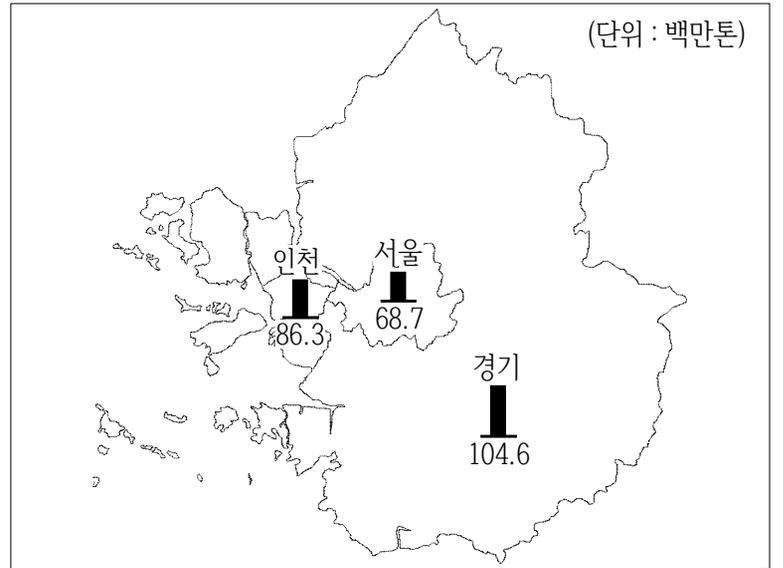


③ 수도권 3개 지역의 상호 간 화물 유동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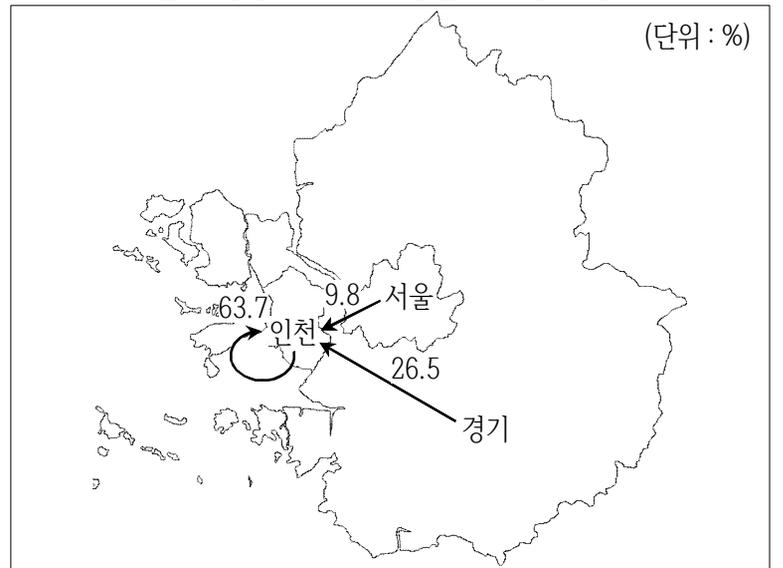


* '상호 간 화물 유동량'은 두 지역 간 출발 화물 유동량과 도착 화물 유동량의 합임.

④ 수도권 3개 지역별 출발 화물 유동량



⑤ 인천 도착 화물 유동량의 수도권 출발 지역별 비중



<문제 유형>

표 → 차트변환형

- ① 통일된 습관을 통하여 자료를 파악하자
- ② 계산의 2단계를 준수하자

<통일된 습관>

합과 계가 존재한다.

<관점의 적용>

보기 ①

차트에 주어진 화살표는 서울→경기, 인천→경기, 경기→경기인데, 담긴 정보는 경기→서울, 경기→인천, 경기→경기이다.
→ 옳지 않다.

답 : ①

문 19. 다음 <표>는 11개 전통 건축물에 대해 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표> 11개 전통 건축물의 공포양식과 주요 구조물 치수
(단위: 척)

명칭	현 소재지	공포양식	기둥 지름	처마 서까래 지름	부연	
					폭	높이
송례문	서울	다포	1.80	0.60	0.40	0.50
관덕정	제주	익공	1.50	0.50	0.25	0.30
봉정사 화엄강당	경북	주심포	1.50	0.55	0.40	0.50
문묘 대성전	서울	다포	1.75	0.55	0.35	0.45
창덕궁 인정전	서울	다포	2.00	0.70	0.40	0.60
남원 광한루	전북	익공	1.40	0.60	0.55	0.55
화엄사 각황전	전남	다포	1.82	0.70	0.50	0.60
창의문	서울	익공	1.40	0.50	0.30	0.40
장곡사 상대웅전	충남	주심포	1.60	0.60	0.40	0.60
무량사 극락전	충남	다포	2.20	0.80	0.35	0.50
덕수궁 중화전	서울	다포	1.70	0.70	0.40	0.50

<보고서>

문화재연구소는 11개 전통 건축물의 공포양식과 기둥 지름, 처마서까래 지름, 그리고 부연의 치수를 조사하였다. 건축물 유형은 궁궐, 사찰, 성문, 누각 등으로 구분된다.

㉠ 11개 전통 건축물을 공포양식별로 구분하면 다포양식 6개, 주심포양식 2개, 익공양식 3개이다. 건축물의 현 소재지는 서울이 5곳으로 가장 많다.

㉡ 11개 전통 건축물의 기둥 지름은 최소 1.40척, 최대 2.00척이고, 처마서까래 지름은 최소 0.50척, 최대 0.80척이다. 각 건축물의 기둥 지름 대비 처마서까래 지름 비율은 0.30보다 크고 0.50보다 작다.

㉢ 11개 전통 건축물의 부연은 폭이 최소 0.25척, 최대 0.55척이고 높이는 최소 0.30척, 최대 0.60척으로, 모든 건축물의 부연은 높이가 폭보다 크다. ㉣ 기둥 지름 대비 부연 폭의 비율은 0.15보다 크고 0.40보다 작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문제 유형>

일반 형(㉠~㉣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총 개수는 11개이다.

<관점의 적용>

보기 ㉠ (단순 확인)

다포양식 = 송례문, 문묘대성전, 창덕궁인정전, 화엄사각황전, 무량사극락전, 덕수궁중화전 6개이다

주심포양식 = 봉정사 화엄강당, 장곡사 상대웅전 2개이다.

나머지는 모두 익공이다. → 옳다.

③,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

보기 ㉡ (단순 확인)

폭의 경우 최소 0.25, 최대 0.55 옳다.

높이의 경우 최소 0.30 최대 0.60 옳다.

남원 광한루의 경우 높이와 폭이 같다. → 옳지 않다.

④번 선지 소거 → 보기 ㉡, 보기 ㉢중 선택

보기 ㉢ (단순 확인)

기름의 최소 = 1.40, 최대 = 2.20 → 옳지 않다.

①번 선지 소거

답 : ②

문 20. 다음 <표>는 대학 졸업생과 산업체 고용주를 대상으로 12개 학습성과 항목별 보유도와 중요도를 설문조사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학습성과 항목별 보유도 및 중요도 설문결과

학습성과 항목	대학 졸업생		산업체 고용주	
	보유도	중요도	보유도	중요도
기본지식	3.7	3.7	4.1	4.2
실험능력	3.7	4.1	3.7	4.0
설계능력	3.2	3.9	3.5	4.0
문제해결능력	3.3	3.0	3.3	3.8
실무능력	3.6	3.9	4.1	4.0
협업능력	3.3	3.9	3.7	4.0
의사전달능력	3.3	3.9	3.8	3.8
평생교육능력	3.5	3.4	3.3	3.3
사회적 영향	3.1	3.6	3.2	3.3
시사지식	2.6	3.1	3.0	2.5
직업윤리	3.1	3.3	4.0	4.1
국제적 감각	2.8	3.7	2.8	4.0

- ※ 1) 보유도는 대학 졸업생과 산업체 고용주가 각 학습성과 항목에 대해 대학 졸업생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조사하여 평균한 값임.
 2) 중요도는 대학 졸업생과 산업체 고용주가 각 학습성과 항목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조사하여 평균한 값임.
 3) 값이 클수록 보유도와 중요도가 높음.

- ① 대학 졸업생의 보유도와 중요도 간의 차이가 가장 큰 학습성과 항목과 산업체 고용주의 보유도와 중요도 간의 차이가 가장 큰 학습성과 항목은 모두 '국제적 감각'이다.
 ② 대학 졸업생 설문결과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학습성과 항목은 '실험능력'이다.
 ③ 산업체 고용주 설문결과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학습성과 항목은 '기본지식'이다.
 ④ 대학 졸업생 설문결과에서 보유도가 가장 낮은 학습성과 항목은 '시사지식'이다.
 ⑤ 학습성과 항목 각각에 대해 대학 졸업생 보유도와 산업체 고용주 보유도 차이를 구하면, 그 값이 가장 큰 학습성과 항목은 '실무능력'이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누적 승점

승리시 승점 3점, 패배시 승점 0점, 무승부시 승점 1점

<관점의 적용>

보기 ①

보유도와 중요도간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

대학 졸업생 = 국제적감각 3.7-2.8 = 0.9

산업체 고용주 = 국제적 감각 4.0-2.8 = 1.2

→ 옳다.

보기 ② (단순 확인)

대학교 졸업생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

실험 능력 → 옳다.

보기 ③ (단순 확인)

산업체 고용주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

기본지식 → 옳다.

보기 ④ (단순 확인)

대학교 졸업생 보유도가 가장 낮은 항목

시사지식 → 옳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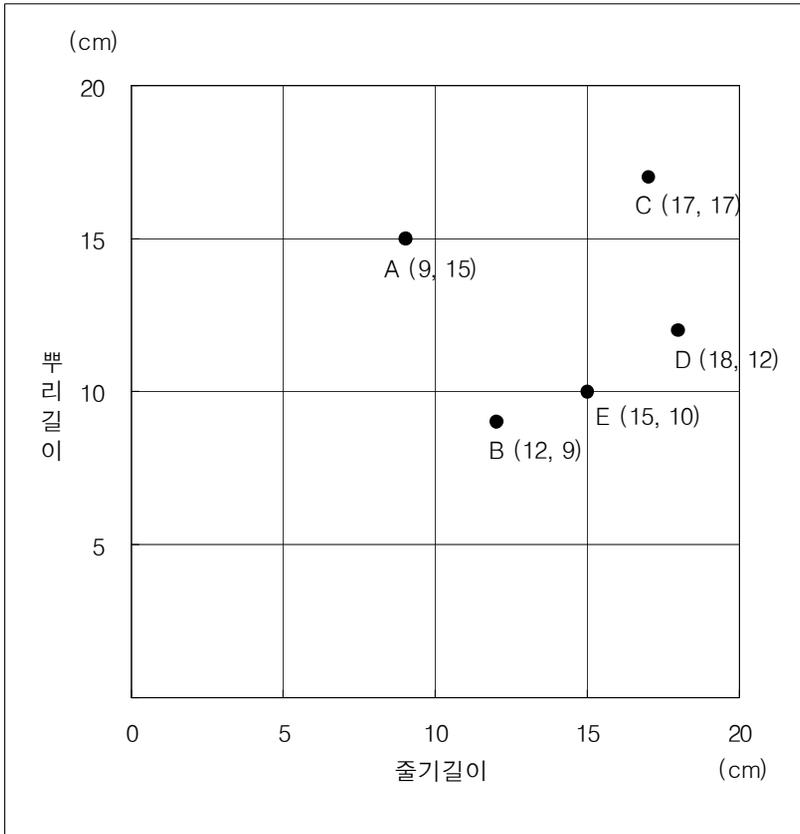
답 : ⑤

문 21. 다음 <표>와 <그림>은 묘목(A ~ E)의 건강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이다. 아래의 <평가방법>에 따라 묘목의 건강성 평가점수를 계산할 때, 평가점수가 두 번째로 높은 묘목과 가장 낮은 묘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묘목의 활착률과 병해충 감염여부

구분 \ 묘목	A	B	C	D	E
활착률	0.7	0.7	0.7	0.9	0.8
병해충 감염여부	감염	비감염	비감염	감염	비감염

<그림> 묘목의 줄기길이와 뿌리길이



* (,) 안의 수치는 각각 해당묘목의 줄기길이, 뿌리길이를 의미함.

<평가방법>

- 묘목의 건강성 평가점수
= 활착률 × 30 + $\frac{\text{뿌리길이}}{\text{줄기길이}} \times 30 + \text{병해충 감염여부} \times 40$
- '병해충 감염여부'는 '감염'이면 0, '비감염'이면 1을 부여함.

두 번째로 높은 묘목 가장 낮은 묘목

- ① B A
- ② C A
- ③ C D
- ④ E A
- ⑤ E D

<문제 유형>

매칭형

- ① 선지 소거를 잘 이용하자.

<통일된 습관>

$$\text{활착률} \times 30 + \frac{\text{뿌리길이}}{\text{줄기길이}} \times 30 + \text{병해충감염여부} \times 40$$

$$\frac{\text{뿌리길이}}{\text{줄기길이}} = \frac{y}{x} = \text{기울기}$$

점수에서 병해충 감염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비감염인경우가 고득점, 감염인 경우가 저득점

<관점의 적용>

가장 낮은 묘목 = 선지에 의해서 A or D

A와 D 모두 감염으로 동일하다.

즉, 중요한 것은 기울기이다. A의 기울기는 D보다 확실히 크다.

D가 가장 작다. → ①, ②, ④번 선지 소거

두 번째로 높은 묘목 = C or E

B, C, E 모두 비감염이고, 활착률은 비슷하다.

즉, 중요한 것은 기울기이다.

B와 E의 기울기는 같고, C의 기울기는 크다

즉, C는 1등이고 B와 E중에서 E의 활착률이 더크기 때문에

E가 2등이다.

답 : ⑤

문 22. 다음 <표>는 3개 기업(A ~ C)의 반기별 수익률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조건>을 근거로 하여 Δ 와 \square 에 해당하는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표> 기업의 반기별 수익률

(단위 : %)

기업 \ 기간	상반기	하반기
A	☆△□	☆○△
B	□☆○	□△☆
C	○□☆	○△☆

<조 건>

- 각 기호는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를 나타낸다.
- 수익률 중 가장 높은 값은 532이다.
- A의 수익률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높다.
- B의 수익률은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높다.
- C의 수익률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높다.

	Δ	\square
①	1	2
②	2	1
③	2	3
④	3	1
⑤	3	2

<문제 유형>

매칭형

- ① 선지 소거를 잘 이용하자.

<통일된 습관>

- 조건 ② 최대값 = 532
- 조건 ③ A 상반기 < 하반기
- 조건 ④ B 상반기 > 하반기
- 조건 ⑤ C 상반기 < 하반기

<관점의 적용>

조건 ⑤에 의해서

- $\square < \Delta$
- ①, ③번 선지 소거

조건 ③, ④, ⑤에 의해서

- $\square < \Delta < \circ, \star \rightarrow$
- 즉 \circ 또는 $\star = 5$

만약 $\circ = 5$ 라면,

C 하반기 = 532 → 이 경우 $\Delta < \star$ 를 만족하지 못한다.

결국 $\star = 5$

A 하반기 = 532 → $\Delta = 2$ → 답 = ②

답 : ②

문 23. 다음 <표>는 '갑'국의 2013년 11월 군인 소속별 1인당 월지급액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 2013년 11월 군인 소속별 1인당 월지급액
(단위: 원, %)

구분 \ 소속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1인당 월지급액	105,000	120,000	125,000	100,000
군인수 비중	30	20	30	20

* 1) '갑'국 군인의 소속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로만 구분됨.
2) 2013년 11월, 12월 '갑'국의 소속별 군인수는 변동 없음.

- ① 2013년 12월에 1인당 월지급액이 모두 동일한 액수만큼 증가한다면, 전월대비 1인당 월지급액 증가율은 해병대가 가장 높다.
- ② 2013년 12월에 1인당 월지급액이 해군 10%, 해병대 12% 증가한다면, 해군의 전월대비 월지급액 증가분은 해병대의 전월대비 월지급액 증가분과 같다.
- ③ 2013년 11월 '갑'국 전체 군인의 1인당 월지급액은 115,000원이다.
- ④ 2013년 11월 육군, 해군, 공군의 월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해병대 월지급액의 4배 이상이다.
- ⑤ 2013년 11월 공군과 해병대의 월지급액 차이는 육군과 해군의 월지급액 차이의 2배 이상이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누적 승점

승리시 승점 3점, 패배시 승점 0점, 무승부시 승점 1점

<관점의 적용>

보기 ① (올올올-1)

증가폭이 모두 동일하다면? → 분모가 작은 것이 가장 높다.
→ 해병대가 가장 높다. → 옳다.

보기 ② (올올올-2)

해군은 10% = 1.1배
해병대 12% = 1.12배
→ 증가분만 따지자 해군은 0.1배, 해병대 = 0.12배
해군 = 120,000 × 0.1
해병대 = 100,000 × 0.12
→ 동일하다

보기 ③ (가중 평균의 응용 -1)

115,000원을 기준으로
넘치는 것 = 해군 (5,000), 공군 (10,000)
부족한 것 = 육군 (10,000), 해병대 (15,000)
→ 못 채워준다.

답 : ③

문 24. 다음 <표>는 농산물을 유전자 변형한 GMO 품목 가운데 전세계에서 승인받은 200개 품목의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승인받은 GMO 품목 현황

(단위: 개)

구분	승인 국가 수	전세계 승인 품목			국내 승인 품목		
		합	A유형	B유형	합	A유형	B유형
콩	21	20	18	2	11	9	2
옥수수	22	72	32	40	51	19	32
면화	14	35	25	10	18	9	9
유채	11	22	19	3	6	6	0
사탕무	13	3	3	0	1	1	0
감자	8	21	21	0	4	4	0
알팔파	8	3	3	0	1	1	0
쌀	10	4	4	0	0	0	0
아마	2	1	1	0	0	0	0
자두	1	1	1	0	0	0	0
치커리	1	3	3	0	0	0	0
토마토	4	11	11	0	0	0	0
파파야	3	2	2	0	0	0	0
호박	2	2	2	0	0	0	0

* 전세계 승인 품목은 국내 승인 품목을 포함함.

- ① 승인 품목이 하나 이상인 국가는 모두 120개이다.
- ② 국내에서 92개, 국외에서 108개 품목이 각각 승인되었다.
- ③ 전세계 승인 품목 중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품목의 비율은 50% 이상이다.
- ④ 옥수수, 면화의 국내 승인 품목은 각각 B유형이 A유형보다 많다.
- ⑤ 옥수수, 면화, 감자의 전세계 승인 품목은 각각 B유형이 20개 이상이다.

<문제 유형>

일반 형(①~⑤형)

- ① 안 풀어도 되는 보기가 1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② 정답이 확정되면 더 이상 풀지 않는다.

<통일된 습관>

전세계 = 200개

합이 주어짐

단, 승인국가수 ≠ 전세계승인품목 + 국내승인품목

(※ 하나는 국가수고, 나머지는 품목이다. 당연히 다르다)

<관점의 적용>

보기 ① (극단으로)

국가수의 합에 대해서 물어본다.

$21+22+14+11+13+8+8+10+2+1+1+4+3+2 = 120$

→ 옳다. 라고 생각했는가?

→ 아니다. 국가간에 겹침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옥수수를 승인받은 국가가 다른 모든 곡물도 승인받을수도 있다. 즉, 승인 국가수 = 22~120이다.

보기 ② (극단으로)

국내 = $11+51+18+6+1+4+1+ = 92$ 개

전세계는 200개니까 → $200-92 = 108$

→ 옳다. 라고 생각했는가?

→ 아니다. 보기 ①처럼 승인 품목 역시도 중복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승인받은 품목이 외국에서도 승인 받을 수 있다.

→ 옳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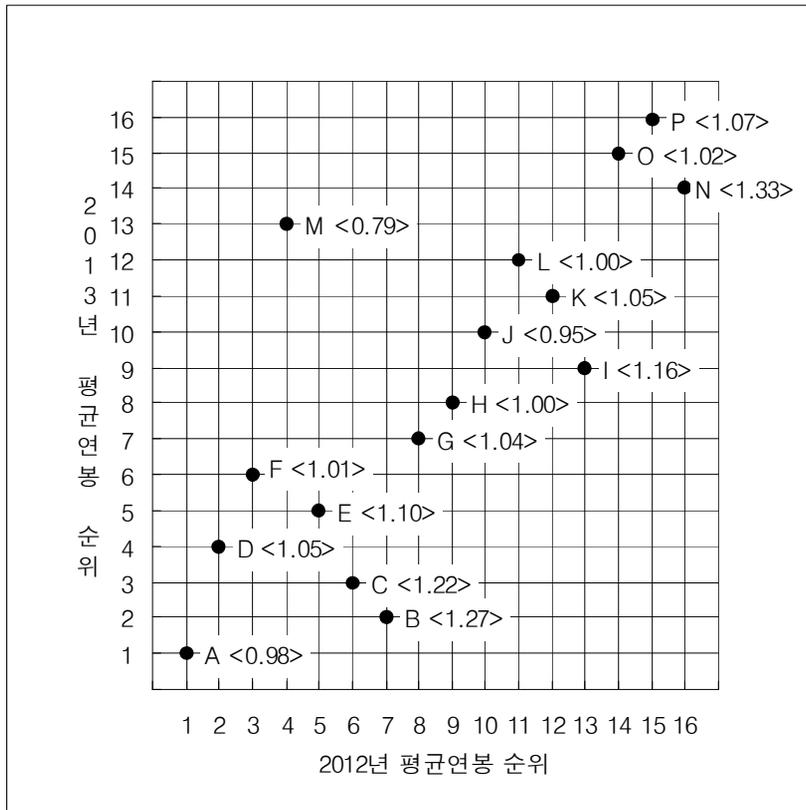
보기 ③

$\frac{92}{200} < 50\% \rightarrow$ 옳다.

답 : ③

문 25. 다음 <그림>은 2012 ~ 2013년 16개 기업(A ~ P)의 평균연봉 순위와 평균연봉비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림> 16개 기업 평균연봉 순위와 평균연봉비



※ 1) < > 안의 수치는 해당기업의 평균연봉비를 나타냄.

$$\text{평균연봉비} = \frac{2013\text{년 평균연봉}}{2012\text{년 평균연봉}}$$

2) 점의 좌표는 해당기업의 2012년과 2013년 평균연봉 순위를 의미함.

<보 기>

- ㄱ. 2012년에 비해 2013년 평균연봉 순위가 상승한 기업은 7개이다.
- ㄴ. 2012년 대비 2013년 평균연봉 순위 하락폭이 가장 큰 기업은 평균연봉 감소율도 가장 크다.
- ㄷ. 2012년 대비 2013년 평균연봉 순위 상승폭이 가장 큰 기업은 평균연봉 증가율도 가장 크다.
- ㄹ. 2012년에 비해 2013년 평균연봉이 감소한 기업은 모두 평균연봉 순위도 하락하였다.
- ㅁ. 2012년 평균연봉 순위 10위 이내 기업은 모두 2013년에도 10위 이내에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문제 유형>

일반 형(ㄱ~ㄹ형)

- ① 선지의 소거를 하자
- ②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부터 풀자

<통일된 습관>

x = 2012년 평균연봉 순위
 y = 2013년 평균연봉 순위

<관점의 적용>

보기 ㄱ (단순 확인)

$y = x$ 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것이 7개인가?

B, C, G, H, I, K, N 7개 → 옳다.

(※ 혹시 순위가 상승한 것을 숫자가 커진 것으로 착각하진 않았는가?)

④, ⑤번 선지 소거 → 무조건 풀어야 하는 보기 ㅁ

보기 ㅁ (단순 확인)

12년 10위 선, 13년 10위 선을 그어놓고, 생각해보자.

→ M의 경우 12년에는 10위안이지만, 13년은 13위이다.

옳지 않다.

③번 선지 소거 → 보기 ㄴ, 보기 ㄷ중 선택

보기 ㄴ (단순 확인)

순위 상승폭 = $y = x$ 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것 → B

B의 연봉 증가율 = 1.27 → 27%

1.27보다 큰 것이 있는가? → N = 1.33이다 → 옳지않다.

②번 선지 소거

재미난 보기

I는 K보다 2012년 대비 2013년의 임금의 상승이 더 많다.

→ 옳다.

I와 K는 2012년 순위와 2013년 순위가 역전됐다.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더많은 임금이 상승 돼야한다.

답 : ①